

‘예향’ 걸맞게 제값 내고 공연 보는 풍토를

추경 TK에 집중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③ 관람문화 실태

관람객 공연 중 휴대폰 소음... 비매너 문제 심각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초대권 없애기 압박서야

지난 28일 광주문화관에서 열린 베를린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스트링 파트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클래식 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베를린 필 단원들의 연주 모습을 광주에서 볼 줄은 몰랐다”는 말이었다. 공연장에서 만난 지인은 공연이 시작하자마자 눈대중으로 관객수부터 헤아려줬다고 했다. “다음 공연”을 예약할 수 있을지 걱정에서였다.

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최근 찾았던 한 공연장에서 있었던 사례. 이날 컨셉은 해설이 있는 공연. 사회자가 한참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계속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초등학생 한 명이 휴대폰으로 계속 가수의 공연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바로 옆에 앉은 엄마는 단 한번도 주의를 주지 않았다.

속제다. 공짜표는 공연의 질을 떨어트리니, 관람문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광주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광주문화재단의 지난 한해 관람객수는 모두 24만5000여명. 이중 유료 관객은 16만명으로 67%에 그쳤고 초대권 관객은 8만명으로 34%에 달했다. 2013년 4월 20일 현재 전체 관람객수는 4만7668명이었고, 이중 유료가

3만6700명, 무료는 1만9600명 수준이었다.

문예회관이 직접 표를 관리하는 시립예술단체 공연의 경우 조례상으로 초대권 발매를 전체 좌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2012년 7개 단체 전체 관객 수는 2만7992명이었으며 이중 초대권은 19% 수준인 4999명이었었다. 올해는 3월 현재 전체 2912명 중 무료 관객은 22.8% 수준인 664명이었다.

모두 6590명으로 무료 비율이 43%에 달했다.

문화계에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초대권이 만연해 있는 광주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무료 관객으로 객석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보면 ‘공짜 관객’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클래식 전문 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기획 공연을 진행하면서 ‘초대권을 뿌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결국 공연 자체를 줄이고 말았다.

문화계 인사 B씨는 “공짜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광주문화재단이 페스티벌 등을 진행하면서 초대권을 마구 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해 광주 현지 실사에 나선 국제수영연맹(FINA)코벌 마르쿠레스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30일 수영장이 들어설 광산구 남부대학교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시설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유치준비 놀랍고 시설도 훌륭했다”

2019세계 수영선수권 유치 실사 마친 FINA 사무총장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국제수영연맹(FINA) 실사단은 지난 30일 “이틀동안 광주의 유치준비 상황을 실사한 결과, 굉장히 놀랍고 시설도 훌륭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코벌 마르쿠레스쿠 국제수영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실사

에 대한 총평과 함께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르쿠레스쿠 사무총장은 “광주시가 2년 이상 유치준비를 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엑셀런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체적으로 훌륭했다”며 “광주에 새롭게 건설될 수영시설들도 (세계수영대회)목적에 잘맞고, 대회 이후에는 시민의 수상 스포츠 생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수영은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TV중계를 통해 120여개국 35억명이 시청한다”면서 “광주를 전세계에 알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흡한 부분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엄격한 FINA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구 경기

장과 여자 하이다이빙 시설 등 두 가지 부분은 일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에서 잘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2019년 개최 희망도시를 묻은 질문에는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또는 두바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등 4개 도시”라면서 “광주를 시작으로 4개 도시의 현지 실사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7월 1일까지 다른 도시들의 주가 접수도 가능한 만큼 희망도시는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치열한 유치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마르쿠레스쿠 사무총장, 피터 홀, 마크 카노 안토네이즈, 소이치 다카하시 위원 등 FINA실사단 5명은 이날 오전 수영장이 건립될 광주 남부대학교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오후에는 기아 자동차와 삼성전자 공장을 둘러보고 서울로 올라가 이흥구 전 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출국날인 다음달 1일 오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는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FINA 집행위원 22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 장병완 의원 분석해보니...

대구·경북 배정 예산 광주·전남의 2배 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사진·광주 남구)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안 가운데 예산 배정 지역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 1조1201억원의 지역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27%(3032억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대구·경북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기지역(1819억원, 16.2%), 대전·충남지역(1465억원, 13.0%), 광주·전남지역(1385억원, 12.4%)이 뒤를 이었다. 부산·울산·경남에는 1142억원(10.1%)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대구·경북에 배정된 지역예산은 부산·울산·경남에 비해 2.6배, 광주·전남의 2.1배, 대전·충남의 2.0배나 되며, 심지어 광주·전남·전북을 합한 호남 전체 및 대전·충남·충북을 합한 충청 전체에 비해서도 약 1.5배나 되는 예산이다.

또 영남지역 전체 예산은 4174억

4000만원이 배정된 데 비해 호남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980억원만 배정됐다.

특히 그동안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던 영남지역 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차가 두드러졌다. 영남지역에 배정된 지역사업 예산 4174억4000만 원 가운데 대구·경북은 3032억4000만 원으로 72.6%를 차지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1142억 원으로 27.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지역,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예산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고위직 인사의 대구·경북 편중현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음에도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대통령 출신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타령이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가 요청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예산 500억원 중 250억원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정특위로 넘어갔다. 애초 정부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박해자 의원의 거듭된 설득으로 예산배정을 받아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그저 만만하게 우리나라?!

☎ 통합콜센터 1544-3412

생활을 바꾸는 작은 기적 문화이용권



문화이용권으로 착한 문화생활 하세요!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공연·전시·영화관람·도서구입 등 문화로 행복을 누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복권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저렴,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선착순 발급(연간 5만원) (기본)가구당 카드 1매 (추가) 청소년(만 10세~19세) (추가)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발급
-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 www.문화이용권.kr